

광양매화축제, 쾌적·안전한 '3무 축제' 자리매김

LOCAL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시·차·일회용품·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장 실현 광양도시락·광양맛보기·매실하이볼 등 인기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차 없는 거리, 일회용품과 바가지요금 없는 3무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광양매화축제는 '한국의 봄, 광양매화마을에서 열다'라는 주제 아래, 매화랑 1박 2일, 매실하이볼 체험, 섬진강 열기구 체험, 섬진강 요트 체험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고 있다.

시는 둔치주차장~축제장 간 무료셔틀 버스 운영으로 차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장 만들기에 힘쓰고 있으며, 접수, 캠프, 수저 등 총 11종의 다화용기를 공급~세척~재공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일회

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장 조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합동점검반이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번 광양매화축제에서는 관광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 또한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매실담아 광양도시락, 광양맛보기, 매실하이볼 등 단돈 5000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스 앞이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입장권 발권 시 환급받는 '축제상품권'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주차장에



매실담아 광양도시락, 광양맛보기, 매실하이볼 등 단돈 5000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스 앞이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서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편하게 축제장까지 갈 수 있었다"며 "개화가 늦어 기대한 풍경은 보지 못했지만, 매들이랜드 체험존, 섬진강 요트, 한국관광 100선 탐방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부담

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광양의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매화 축제의 고질적인 난제인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장 마련을 위해 차 없고 일회용품 없고 바가지요금 없는 3무 축제를 정착시켜 지역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장흥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경영마케팅 과정 등 교육생 모집

장흥군은 오는 27일까지 지역의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업·농촌발전을 견인할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2개과정으로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인 스마트농업반과, 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인 경영·마케팅반에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토론 등을 병행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농업소득에 도움이 되는 농업전문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ICT 기술 기반 작물재배 및 환경 관리, 설계 및 장비 구축, 재배기술 등 스마트농업 교육과 농업 경영 및 마케팅 계획 수립, 디지털미디어 기반 마케팅 실습 등 판로 확대 방안 등의 내용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jares.jangheung.go.kr/jares>)에 공지된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

장성서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대축제 8월 15일 장성무궁화공원...“나라꽃 의미 되새기는 계기”

장성군이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무궁화 대축제' 개최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산림청 공모사업인 '무궁화 대축제'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담아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두산그룹과 민관 협력으로 조성한 장성무궁화공원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무궁화 명소'다.

김한중 군수는 "전남을 대표해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대축제를 개최하게 됐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 장성군과 경기 수원시, 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총 4곳에서 축제가 열린다.

국비 포함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한 장성군은 장성읍시까지 장성무궁화공원에서 축제를 열 예정이다. 무궁화 '플라워 퍼레이드', 무궁화 '뷰티쇼' 등 특색있는 행사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무궁화 정원 꾸미기, 무궁화-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된 장성무궁화공원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무궁화 명소'다.

김한중 군수는 "전남을 대표해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대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무궁화의 의미를 돌아보는 뜻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정환 기자 h66693@



광복 80주년 기념 무궁화 대축제가 열리는 장성무궁화공원

'고흥 유자라면' 서울 시민과 만난다

21~23일 K-푸드 페스티벌서 특별 시식행사...특산품 홍보도

고흥의 상징 유자가 다시 한번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한다.

고흥군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3~8시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리는 K-푸드 페스티벌에서 '고흥 유자라면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고흥유자축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유자라면은 당시 시식 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호응을 얻으며,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새로운 미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서울 행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우석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 라면은 제품으로 출시된 것은 아니지



만, 그 가능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서 증명되고 있다.

고흥유자라면은 기존 라면과 차별화된 닭고기와 육수를 사용해 감칠맛을 강조했다. 여기에 고흥 유자의 신선한 향과 산뜻한 맛이 더해져 새로운 라면 경험을 선사한다. 유자의 은은한 풍미가 국물과 조화를 이루며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푸드트럭에서 갓 조리된 유자라면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으며, 고흥군은 유자 외에도 다양한 특산품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해 서울 시민들에게 고흥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단순한 시식 행사가 아닌, 고흥을 미식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기회로 삼아 지역 특산물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보성, 봄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10만원 이상 기부자 50명 추첨...인기 답례품 증정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봄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따뜻한 혜택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보성

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주문한 기부자 중 50명을 추첨해 인기 답례품 중 1종을 추가로 증정한다.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 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문

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부는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닌 누구나 개인별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과 은행 앱(국민, 하나, 농협, 신한, IBK) 또는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인센티브 받고 영광여행가자" 관광객에 최대 8만원 지원

영광군은 소규모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 트렌드에 따라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군은 타 지역 거주자 2~5인으로 구성된 관광객팀을 대상으로 관광지 방문 후 SNS인증 등을 필수조건으로 7만원, 10만원, 15만원 이상 지역 내 소비금액에 대해 3만원, 5만원, 8만원을 지원한다.

단 영광군 지역축제인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 범성포단오제, 영광찰보리야마당, E모빌리티엑스포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인센티브 지원은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광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B1등급 보호용 방호 울타리(설치 의무화)
기초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비 절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적용(기준 만족)
보도폭 확보 용이

HANGIL

사람과 도시

크리크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인생을 주효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빛을 저류 조

침투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정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빛을 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한디식생포장공법, 유수분리장치 외

블록형 결합구조로 시공이 간단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공극률 95% 이상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길재 울타리 가이드레일

개방형 가이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알루미늄 데크

식생포장

HANGIL (주) 한길산업

www.hgrid.co.kr

본 사 1(공장) 전남 영광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 소 2(광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레스(LS)로 172 한림휴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